

사설

‘경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산은 높아서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구에 빗대어 말한다면 민족은 물리적 시간의 길이어서 귀한 것이 아니다. 역사속에 문화가 있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확고할 때 비로소 귀함을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훌륭한 민족이란 자신의 국토와 역사 문화 사상이 승화된 자긍심에 이어서 있고 그것을 후손에게 있게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자각없이 개발하고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국토의 파괴, 문화재의 파손은 자손에 대한 큰 죄가 될 것이다.

우리는 끝날 문화민족임을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특이 “잘 살아 보세”의 구조속에 씩씩직한 사고가 일반의 무의식속에 숨어있고 편익성 효력성을 앞세워 하루아침에 귀한 자연환경 문화재를 손상에 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산업화로 결국은 거친 인심과 함께 한강의 오염이 남았다. 이제 우리나라 강의 대부분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고 외국에서 물을 사서 마셔야 할 형편이 되었다. 실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수값은 수입기름보다 더 비싸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나치게 서둘렀던 산업화의 모순을 통감한다. 공업제품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식수를 사서 마시는 아이러니에 후손들은 이 세대를 어떻게 평할 것인가?

이에 견주어 경주 고속전철 통과문제를 생각해 본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시공 기간의 단축과 건설비용의 절감을 내세우는 경제논리이며 두번째는 민족의 최대 문화유산의 절대 보호의 입장이다. 좀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문화재의 보호가 단순한 산술적인 경제논리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본래 한국의 종로는 자상하고 규모도 작으며 인간의 접근을 막지 않는다. 고대의 문화재는 이러한 자연에 어울려 직접 인간의 손에 의해 다듬

어진 것이다. 기계문명의 가능성으로 인간의 마음이 거칠게 손상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고대의 문화재에서 조상과 고운 마음을 느끼며 큰 위안을 받는다. 경주의 귀함은 그러한 인간적인 분위기에 있다. 이러한 고적에 쉽게 접근해서 코카콜라나 마시고 돌아온다면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없다. 관광객은 옛것의 소박함에서 감동을 찾는다. 문화는 민족고유의 원형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산물이며 좀처럼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대상이다.

한편 문명이란 자동차, 기차, 전자제품 등의 편익성 효율성이 높은 산물이며 쉽게 남에게 전달되는 것들이다.

문명의 발달은 고유의 문화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일으킨다. 세계는 국제화의 흐름으로 문명이 전파되면서 한편으로 문화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민족적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이다. 소수민족의 독립이 계속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명절때 민족이동은 해마다 더해간다. 국제화의 원심력과 원형회귀의 구심력이 동시에 진행되어가는 추세속에서 세계적으로 민족 고유의 문화재는 더욱더 가치를 더해간다. 관광자원의 견지에서도 고유의 문화에 가치가 더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인에게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경주의 유산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주 고속전철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물질숭배, 편의성 도모와 같은 사고와 같은 맥락에 있기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속철도의 경주 우회통과노선을 내놓았던 문체부장관이 최근 포항에서 “노선변경없다”는 재확인하고 함께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한것은 행정부가 얼마나 ‘행정권의’에 쫓겨 있는가를 대변하는 대목이라고 한다.

“고도경주를 지키기 위해 고속철도 노선을 변경한다”고 말이다.

열린마당

군승자격 범위 확대

지난달 6일 국방부는 포교원이 질의한 병역법 군승부분 조항 유권 해석에 대해 “교육법에 의한 불교 대학 이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승려인 경우에도 군중장교요원 선

발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군승인용자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과 군승단, 각 종단별로 내부규정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편집자 주>

자격심사제 도입등 효율운용 방안을

원혜

이번 국방부의 군승요원 자격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일단 군승확보에 승승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군승자격요건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군승충원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국방부가 금년부터 타종교에 비해 절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군승을 종교간 형평성에 따라 20여명으로 늘려 군승의 자격요건 확대가 필요했다.



포교원은 이번 국방부의 ‘군승자격 범위 확대’ 통보에 따라 맞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질없는 군승배출을 배제하기위해 일반대학을 졸업한 승려라도 △사교과이상의 졸업자 △출가한지 2년이

상인 스님에 한해 군승요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부규정을 군승단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군승확보를 위해서는 중암승가대 및 각 승가대의 학인스님에게도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종단에서도 ‘군승자격 범위 확대’ 통보에 따라 맞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승요원 자격범위 확대를 계기로 군포교의 활성을 기대해 본다.

(조계종 포교부장)

종단마다 유능한 인력 배출에 힘써야

덕혜

군승요원 자격을 일반대학의 졸업자로 확대한 국방부 유권해석을 환영한다.

병역법 제53조 3항 군승부분 조항에 따르면 “학사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으로 군승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종단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승려들의 군승이 가능해지고 본다.



그동안 군승자격을 조계종 종립 동국대 불교학과에만 부여하고 있어 다른 종단에서는 군승을 과할 기회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권법으로 조계종에서 다시 계를 받아 군승으로 파견된 경우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진각종도 군승과제에 따른 방안마련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본 교단은 내년에 개교하는 위덕대학 불교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군승사관후보생을 모집한다.

이처럼 군승후보생이 늘어남에 따라 포교의 활용어장인 군포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종단마다 유능한 군승배출을 위해 교단차원의 지원을 마련해야 하겠다.

(진각종 홍보부장)

서로 다른 종지·종풍등 조화대책 필요

한상길

군승요원 임용자격범위의 확대는 군승중원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각 종단에 군승요원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각 종단별로 서로 다른 종지·종풍을 어떻게 통합해서 군체계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난점이 뒤따른다.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될 것으로는 의식의 통



일문제다.

내년부터 진각종에서 설립하는 위덕대학에서도 군승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등 각 종단의 군승요원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벌교라는 특이

성을 감안할 때 군승단의 통일법요집 등을 활용하는 등 대안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교단별 교화방안이나 군승후원 문제 등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기타 구체적인 군승자격요건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후 오는 11월30일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군승단의 발전과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군승단 총무국장)

시론

‘5·18의 진실’과 ‘참회’

은 나라가 5.18 특별법 제정 요구와 책임자 기소추구 운동의 열기로 들끓고 있다. 검찰이 성공할 구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사 종료 발표 이후, 검찰의 이와같은 결론이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교수 및 관련단체들의 성명서 발표·집회·서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9월 29일과 30일 이를 동안에 벌어진 대학가의 동맹휴업과 거리시위는 이 운동의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한다. 역사의 왜곡에 대한 분노는 일본이 자행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호도하는 작태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 그것을 획책하는 자는 그가 누구 혹은 어느 민족이냐에 관계없이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픈 흔적이다. 때문에 역사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든 책임자를 기소

는 것이 있어 매우 흥미롭다. 장부경전의 기계인본경과 아함부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대루탄경이 바로 그러한 경이다. 경에 의하면,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은 게으르면서도 탐욕스러운 소수가 저지른 잘못행위에 의하여 무너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편 무너진 공동생활의 질서는 급기야 서로가 비난하고 구타하는 악의 민연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다시 평화로운 질서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전단하여 해결할 누군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통치자 혹은 정부라는 것이다.

반윤리 행위 관행화 ‘우려’

따라서 승가에 적용되는 비리제독이나 재가자가 수직하는 오계에 포함되어 있는 불살생과 불투도의 계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혹은 국가의 기능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불살생은 존로크가 주장하는 생명과 자유라는 자연권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불투도는 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수많은 왕과 대신들에게 설해 준 국가 혹은 통치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5.18은 그 명분에 관계없이 국가의 중



윤세원 <인천전문대 교수·정치학>

5.18은 12.12라는 쿠데타적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5.18 그 자체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국가의 존재이유와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5.18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는지를 5.18과 국가의 존재이유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인 관점을 상호연계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소수가 무너뜨린 공동체

존로크는 전정치적인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 법에 복종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성의 법칙인 자연법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였고 그것은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로 요약 되어진다. 이러한 인간의 자연권은 남에게 침해 당해서도 안되고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존로크의 이러한 자연권 정신은 근대민주주의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 이론적 지주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하메드 불교의 초기경전 중에도 국가 혹은 정부의 출현과 기능을 존로크의 주장과 거의 흡사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

추기관에 의하여 그 보호대상인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은 이러한 사건에 관한 사후처리 양식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먼저 5.18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인한 사건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사건의 사후처리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성공민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다는 반감찰적인 자기당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이러한 식의 사후처리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는 반윤리적인 행위가 하나의 관행과 상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불교도는 이 땅에 다시는 살생의 이름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진상을 밝히는 일에는 아무리 철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고, 관련자들의 참회는 아무리 깊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현대만평



부처님 앞에서 차별없이...

올해년 윤팔월 팔공산 동화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 및 일만등 광명 불사



삼보에 귀의하옵고, 만물이 영그는 청명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들의 가정과 이웃에 부처님의 금강가피가 항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청암벽류의 계곡과 수려한 수림 가운데 봉황의 기상으로 자리잡은 수행과 기도의 청정 대가람 팔공산 동화사에서는 올해년 윤팔월 맞이하여 『보살계 수계 법회』와 『일만등 밝히기 광명불사』를 봉행합니다.

삼세의 인연으로 수회동참하시어 선근의 구축성불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보살계 수계 대법회』
 - 일시: 불기 2539년 10월 23일 월요일 (음력 8월 29일) 오전 10시
 - 장소: 동화사 통일대불전
 - 三師: 진계 대화상 - 고산 큰스님 (해원정사 조실) 갈마 아사리 - 진계 큰스님 (동화사 조실) 교수 아사리 - 종진 큰스님 (해인사 율원장)
 - 七禮: 무공, 벽봉, 원명, 지성, 도원, 태일, 지우 스님
 - 동참금: 삼만원
-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일만등 밝히기 광명불사』
 - 1인 1등: 오천원
- 문의 및 접수: 동화사 종무소 ☎ (053) 982-0101~2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주지 무공 합장